

물리·광과학과 남인혁 박사, UNIST 물리학과 부교수 임용

- 석희용 교수 지도로 2015년에 물리·광과학과에서 플라즈마물리학 분야 연구로 박사학위 받아... 미국의 저명한 국립연구소인 스탠포드 선형가속기센터에서 박사후 연구원 경력 쌓은 후 2017년부터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
- "앞으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최고의 석학이 되어 주기를 당부"



▲ 올해 9월 1일자로 UNIST 물리학과 부교수로 임용된 남인혁 박사.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물리·광과학과 박사 졸업생인 남인혁 박사(지도 교수: 석희용)가 **9월 1일자로 울산과학기술원(UNIST) 물리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었다고 밝혔다.

남인혁 박사는 지난 2015년에 물리·광과학과에서 플라즈마물리학 분야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세계적 명성을 가진 미국의 저명한 국립연구소인 스탠포드 선형가속기센터에서 박사후연구원 경력을 쌓았으며, 귀국 후 2017년부터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해 왔다.

남 박사는 2021년에 광학 분야에서 영향력 지수가 제일 높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포토닉스'에 새로운 자유전자레이저 발진 방법 연구 결과를 주저자로 발표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주관 '올해의 10대 과학기술 뉴스'에도 선정되는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

지도교수인 석희용 교수는 “연구실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자신의 연구에 매진하여 좋은 성과를 이룬 제자가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 남인혁 교수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최고의 석학이 되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